

【논문】

논증과 논증행위*

—비판적 사고 교육의 관점에서—

배 식 한

【주제분류】 논리학, 분석철학

【주요어】 비판적 사고, 논증, 논증행위, 비형식 논리, 논리적 타당성, 규범

【요약문】 효과적인 비판적 사고 교육을 위해서는 논증에 대한 형식 논리학적 분석보다는 논증행위 자체에 대한 분석에 치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커지고 있다. 필자는 ‘논증(argument)에서 논증행위(argumentation)로’의 이러한 중심 이동이 가져올 효과와 한계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전략은 논증행위 이론들로부터 확보될 수 있는 논증 및 논증행위 평가의 규범들을 최대한 뽑아내서 그것들을 비판적 사고 교육 과정에 적용시킬 때 전개될 모습을 구체화해보는 것이다. 필자는 먼저 논증에서 논증행위로의 중심 이동의 동기들을 페렐만과 울브레히츠-티테카, 툴민, 비형식 논리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II), 이들의 이론들로부터 형식 논리학적 타당성 규범을 대신할 논증행위 평가의 규범과 절차들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III).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뽑아낸 여러 규범들을 종합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이를 비판적 사고 교육에 적용했을 때 나타날 구체적 모습을 형식적 논리학적 접근 모델과의 대조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논증행위 이론들의 성과들이 비판적 사고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를 구체화시켜보겠다(IV).

* 이 논문은 2009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들어가는 말

1990년대 들어 “비판적 사고”¹⁾라는 이름의 강좌와 교재가 국내에 등장한 이래 20년의 기간 동안 비판적 사고 교육에 논증행위에 대한 이론적 성과의 영향이 커져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한마디로, ‘논증(argument)에서 논증행위(argumentation)로의 중심 이동’²⁾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심 이동이 비판적 사고력 함양이라는 본래 목적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논증행위로의 중심 이동은 추상화되고 형식화된 논증 대신 실제적인 논증행위의 분석 및 평가에 집중케 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에 맞추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사적 기술이나 가르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가? 본 논문은 이런 의문에 논증행위 이론들이 얼마나 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논증행위 이론이 이룩한 성과를 비판적 사고 교육에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따라서 논증과 논증행위 간에 이루어질 대조는 대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자 간의 적절한 위치 설정을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의 전략은 논증행위 이론들로부터 확보될 수 있는 논증 및 논증행위 평가의 규범들을 최대한 뽑아내서 그것들을 비판적 사고 교육 과정에 적용시킬 때 전개될 모습을 구체화해보는 것이다. 필자는 먼저 논증에서 논증행위로의 중심 이동의 동기들을 페렐만과 올브레히

1) 예를 들어, 김광수(1990).

2) 영어 ‘argument’는 언어적 결과물로서의 논증뿐만 아니라 논증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다시 말해 넓은 의미의 argument에는 argumentation도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말 ‘논증’은 결과물로서는 읽히나 행위나 작용으로는 잘 읽히지 않는다. 필자는 언어적 결과물로서의 전체와 결론의 집합에만 ‘논증’을 사용하고, 행위로서의 논증하기 또는 논증활동(argumentation)에는 가능한 한 ‘논증행위’를 사용하겠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논증(argument) 개념에 대해서는 박준호(2006) 참조. 양은석(2010)은 논증과 논증행위를 혼동을 비판하면서 이들의 구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필자도 그 견해에 동의한다.

츠-티데카, 톨민, 비형식 논리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II), 이들의 이론들로부터 형식 논리학적 타당성 규범을 대신할 논증행위 평가의 절차와 규범들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으며 또 어디에서 한계에 직면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III).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뽑아낸 여러 규범들을 종합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이를 비판적 사고 교육에 적용했을 때 나타날 구체적 모습을 형식적 논리학적 접근 모델과의 대조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논증행위 이론들의 성과들이 비판적 사고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를 구체화시켜보겠다(IV).

II. 논증에서 논증행위로

‘논증에서 논증행위로의 중심 이동’은 논증의 결과가 아닌 과정의 측면, 행위적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구호이다. 이는 곧, 명제들의 집합인 논증에서 그러한 논증이 생산되는 논증행위로의 관심 이동을 뜻한다. 또한 이는 논증에 대한 관심이 논리학적인 것에서 행위 이론적인 것으로, 인식론적인 것에서 화용론적인 것으로 이동함을 뜻한다.³⁾

“논증은 하나는 결론으로, 나머지는 그 결론의 근거로 간주되는 문장들의 목록이다.”⁴⁾ 버거의 이 정의는 논증에 대한 논리학적 정의의 전형이다. 전제와 결론의 연결로만 논증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에서는 결론의 주장과 전제로 주어진 근거들 간의 관련성만이 연구의 대상이 되며, 그 주장과 근거 제시의 구체적인 상황들은 추상 과정 속에서 배제된다. 먼저 그 논증이 이루어지는 배경과 주체가 배제된다. 다음으로 다르게 표현된 낱말들이 동일한 낱말의 반복으로 바뀐다. 그리고 타당성 판정과 무관한 의미들이 지워진다. 연역추리에 결정적

3) “논증행위에 대한 논리적 접근은 전통적으로 산물(product)로서의 논증에만 집중한다.”(Eemeren, F. H. van, Grootendorst, R., & Henkemans, F. S.(1996), 277쪽, 각주 6번). 과정(process), 산물(product), 절차(procedure)로서의 논증의 구분에 대해서는 Wenzel, J. W.(1980) 참조.

4) Berger, F. R.(1977).

인 기능을 하는 ‘그리고’, ‘또는’, ‘만약’ 등의 접속사가 강조되고, 그것들이 엄격하게 정의된 논리적 연결사로 대치된다. 이처럼 몇 단계의 추상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 관심의 대상으로 남는 것은 그 논증의 논리적 형식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연역논증의 형식들 중 하나와 일치하면 그것은 타당한 논증이 된다.

이러한 추상이 가져올 반응은 하워드 캐헤인이 이미 1970년대 초에 겪었던 것과 멀지 않다.

“내가 복잡한 술어논리의 양화사 규칙들을 (제) 흥에 겨워 떠들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쩡그린 얼굴로 물었다. 자신이 이번 학기 내내 배운 것이 존슨 대통령의 베트남전 확전 결정과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냐고. 나는 존슨 쪽 논리의 문제점에 대해 웅얼웅얼 말하고는, <논리학 입문>은 그런 종류의 강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어떤 강좌가 그런 문제들을 다루느냐고 그가 반응했고, 나는 내가 아는 한은 그런 강좌는 없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⁵⁾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논증의 형식화 및 재구성 훈련은 복잡하게 뭔가를 하긴 했지만 얻는 것은 크게 없다는 인상만을 남기기 십상이다. 이러한 과정을 용케 잘 따라가 타당한 논증 형식들을 잘 익혔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당장 얻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의 재확인뿐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일상적 논증의 경우 타당한 논증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또 맞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와는 먼 이론적 작업에 매달려야 한다.

교수자의 편리 때문에 비롯되는 부작용도 있다. 일상적 논증의 분석을 위해 타당한 연역논증 형식들을 학습하려 한 것이었는데, 결과는 오히려 타당한 연역논증 형식들을 이해하기 위해 일상적 논증들이 단편화, 왜곡, 탈맥락의 인공물로 탈바꿈해 이용된다. 목적과 수단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물론 목표는 짧은 논증을 통한 체계적인 훈련을 거쳐 복잡한 텍스트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두 학기 정도 이루어지는 비판적 사고 강좌로는 타당한 논증 형식

5) Kahane, H.(1971), v쪽.

을 이해시키기에도 벅차다.

추상적 논증 분석에서 출발하여 구체적 ‘논증하기’에까지 이르는 길이 너무 멀뿐만 아니라 오히려 ‘논증하기’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논증행위 자체에 대한 이론(argumentation theory)이나 비형식 논리학(informal logic)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일차적 극복 대상은, 코파의 용어를 빌면, 연역지상주의(deductive chauvinism)⁶⁾이다. 연역지상주의란 어떤 논증 또는 논증행위든 연역적인 형태로 재구성될 때 그것의 진정한 모습이 살아난다는 입장을 말한다. 보다 온건한 형태로 방법론적 연역주의(methodological deductivism)가 있는데, 연역적인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이 다른 재구성 전략들보다 난점은 적고 밝혀주는 것은 많다는 입장이다.

1. 페렐만과 올브레히츠-티테카

페렐만과 올브레히츠-티테카(이하 ‘페렐만’으로 줄여 호칭)는 『새 수사학』 서문에서, 자신의 책이 “데카르트에서 비롯된 이성 및 추론 개념과의 결별”을 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이성의 특징은 자명성이며, 오직 증명만을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증명이란 “명석하고 판명한 관념에서 출발해서 필연적인 단계를 거쳐 공리의 자명함을 파생된 정리로까지 확장하는 것”⁷⁾을 말한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이성과 증명은, 페렐만에 따르면, 일상 언어로 이루어지는 논증행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형식 논리학에서 “타당하다”고 하는 연역논증의 전제와 결론 간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분석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일상적인 논증의 경우에는 이런 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관계는 너무도 자명해 굳이 논증행위로 나타낼 필요조차 없다. 타당한 논증이 의미 있게 존립할

6) Coffa, A. J.(1974).

7) 이 문단의 인용은 모두 Perelman, C. & Olbrechts-Tyteca, L.(1969), 1쪽.

수 있는 자리는 일상의 잡다한 맥락과 완전히 차단된, 이상적인, 그래서 비현실적인, 수학적 공간뿐이다.

논증의 종류에 대한 페렐만의 구분은 논리학에서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우리가 통상 접하게 되는 논증 유형 소개에서는 연역논증의 형식들이 이상적 형태로 먼저 제시되고, 그 다음으로 귀납논증들이 관련된 오류 가능성과 함께 뒤따른다. 하지만 페렐만은 논증을 ‘결합에 의한 논증’(argument by association)과 ‘분리에 의한 논증’(argument by dissociation)으로 나눈다. 일단 이러한 논증 구분은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구분과 다르다. 이는 페렐만이 논증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다름을 보여준다. 페렐만은 『새 수사학』의 목표가 “제시된 주장에 대한 생각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거나 증대시켜주는 논증적 기술을 연구”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페렐만에게는 논증의 타당성보다는 사람들의 지지가 우선적 관심의 대상이며, 전제와 결론의 논리적 관계보다는 그것들을 활용하는 논증적 기술이 더 큰 관심사이다.

『새 수사학』이 제시한 논증의 1차적 구분인 ‘결합’과 ‘분리’는 논증의 기술(technique), 다시 말해, 청중의 지지를 이끌기 위한 전제 활용 기술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결합에 의한 논증이란 떨어져 있다고 여겨졌던 요소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의 전체를 만듦으로써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논증 방식을 말하며, 분리에 의한 논증이란 반대로 하나의 전체로 간주되었던 것을 여러 요소로 분리시킴으로써 주장을 (주로) 거부하게끔 하는 논증 방식을 말한다. 예컨대 “책을 읽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책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는 결합에 의한 논증이다. 여기서서는 책과 배움이 결합됨으로써 좋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다른 한편, “지구의 기원에 관한 지질학적 조사를 토대로 성경의 창조설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창조설에 말하는 진리는 지질학적 조사를 통해 밝혀진 몇몇 참된 사실들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는 분리에 의한 논증의 예이다. 분리에 의한

8) Perelman, C. & Olbrechts-Tyteca, L.(1969), 4쪽.

논증은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데, 이 예에서는 한 덩어리였던 진리를 두 종류의 진리, 즉 종교적 진리와 과학적 사실로 분리시킴으로써 지질학과 창조설의 충돌을 피하고 있다.

페렐만의 분류에서 재미있는 것은, 결합과 분리 어디에도 연역논증을 위한 독립된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결합에 의한 논증의 한 하위 그룹으로 ‘준논리적 논증’(quasi-logical argument)이란 것이 있을 뿐이다. 이 준논리적 논증에는 우리가 연역논증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모든 일상적인 논증이 포함된다. 그런데 타당한 연역논증의 형식을 갖추었음에도 페렐만은 그것에 뭔가 부족하다는 뜻의 ‘준’(quasi)이라는 말을 붙인다. 그 이유는 타당한 연역논증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 우리가 끼워맞추었을 뿐이지, 일상적인 논증 자체가 그런 형식을 온전히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타당한 연역논증의 형식을 갖추려면 논증에 포함된 용어들이 엄밀하게 정의되고 일의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상적인 논증의 경우 설령 동일한 낱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각 명제에서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예를 들어, “의심을 품는다면 떠나야 한다는 것에 우리 모두 동의했다. 그런데 철수가 의심을 품는다. 따라서 철수는 떠나야 한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라는 논증을 보자. 이 일상적 논증은 전건긍정식의 타당한 형식을 지닌 논증이다. 하지만 전제로부터 결론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떠남의 조건으로서의 ‘의심을 품음’과 철수의 ‘의심을 품음’이 같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자의 의심을 품음은 확고한 것을 말하는 데 반해, 후자는 주저함이 가미된 것일 수 있다. 정리하면, 일견 형식적으로 타당해 보이더라도 애매어의 오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므로 일상적인 논증은 기껏해야 준논리적 논증일 수밖에 없다.⁹⁾

9) Eemeren, F. H. van, Grootendorst, R., & Henkemans, F. S.(1996), 108 쪽 참조.

2. 툴민

페렐만의 『새 수사학』과 같은 해에 『논증의 사용』¹⁰⁾을 출간하여 논증행위 이론의 또 다른 기둥을 세운 스티븐 E. 툴민은 논리학자들의 완고한 타당성 개념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시작한다. 논리학자에게 논리적 타당성은 모든 논증 평가의 보편적 규범이며, 오로지 논증의 형식에만 의존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두 특징은 서로 맞물려 있다. 타당성이 오직 형식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다루는 주제와 무관하며, 그래서 보편적인 규범일 수 있다. 툴민의 불만은 논리학이 바로 이 보편성의 신화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다. 툴민은 보편성과 타당성을 분리시키려 한다. 보편적인 것만이 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편성을 고집한 대가는 결국 논리학의 고립만을 초래했을 뿐이다. 논리학의 관심사는 오로지 형식적인 타당성으로 한정되었고, 결과적으로 논리학은 분석적 논증, 즉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는 논증만을 다룰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툴민의 전략은 따라서 ‘연역=타당=보편적=형식적=분석적’의 강고한 연결을 끊는 것이다. 한 예로 툴민은 논증의 타당성이 오직 형식에 의존한다는 생각을 다음 예를 들어 비판한다.¹¹⁾

- (1) 피터슨은 스웨덴 사람이다.
- (2) 어떤 스웨덴 사람도 로마카톨릭 교도가 아니다.
따라서 확실히
- (3) 피터슨은 로마카톨릭 교도가 아니다.

이 삼단논법은 소전제 (1)과 대전제 (2)로부터 결론 (3)을 도출하는 타당한 논증이다. 통상 이 논증은 EAE-1격의 형식 때문에 타당하다고 말해진다. 하지만 툴민은 대전제인 (2)가 다음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10) Toulmin, S. E.(1958).

11) 다음에 나오는 삼단논법의 예는 Toulmin, S. E.(1958) 2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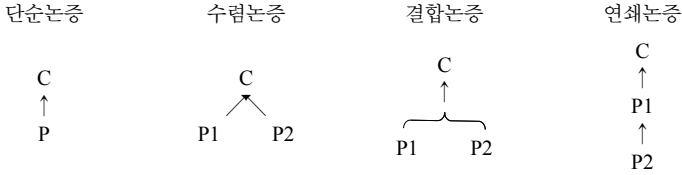
- (2a) 스웨덴 사람은 확실히 로마카톨릭 교도가 아니다.
- (2b) 로마카톨릭 교도인 스웨덴 사람의 비율은 0이다.

이 중 (2a)로 해석될 경우 위 논증은 논리적 형식 때문에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b)의 경우에는 적용할 만한 타당한 논리적 형식이 없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가? 톨민은 (1)-(2b)-(3) 역시 타당한 논증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형식과 상관없이 타당한 논증이 있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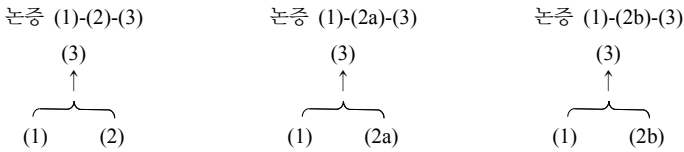
(2)에 대한 이 두 가지 해석에는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 형식 논리학자의 눈에는 (2a)와 (2b)는 동일한 삼단논법 형식으로 치환될 동일한 것이다. 하지만 톨민이 보기에 이는 아주 중요한 점을 놓치는 것이다. (1)-(2a)-(3)과 (1)-(2b)-(3)에서 결론 (3)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2a)와 (2b)가 하는 역할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제로 쓰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제의 역할이 다르다. (2a)는 ‘데이터’(data)의 역할을 하는 전제 (1)로부터 ‘주장’(claim) (3)을 이끌어내기 위한 ‘보증’(warrant)의 역할을 하는데 반해, (2b)는 조사 결과를 표현한 것으로서 ‘보증’의 역할을 하는 (2a)를 다시 지지해주는 ‘뒷받침’(backing)의 역할을 한다.¹³⁾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논증구조도와 톨민의 논증행위 모델을 비교해보자.¹⁴⁾ 논증구조도 방식에 따르면 논증은 하나의 전제로부터 하나의 결론이 도출되는 단순논증과 둘 이상의 전제로부터 하나의 결론이 도출되는 복합논증으로 나뉘고, 다시 복합논증은 수렴논증, 결합논증, 연쇄논증 셋으로 나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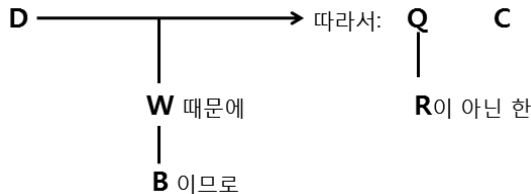
12) 이로 보건대 (1)-(2a)-(3)이 (1)-(2b)-(3)보다 더 근원적인 형태이거나, 일 수 있다는 가정을 톨민은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
 13) Toulmin, S. E.(1988), 107-122쪽.
 14) 사실 논증을 논증구조도로 나타내는 것 자체가 연역주의를 상당히 탈피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논증을 논리적으로 타당한 논증 형식으로 환원시키려고 하지 않고, 연역적으로 타당하든, 않든 각각의 논증에 맞게 전제-결론 관계를 구조도로 나타내고 그것을 평가하려 하기 때문이다.
 15) 우리가 자주 보는 논증구조도는 비어드슬리(Beardsley)가 처음에 수렴(convergent), 발산(divergent), 연쇄(serial) 논증으로 나눈 것에, 토마스



위의 피터슨 논증의 세 경우는 모두 결합논증으로써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보다시피 논증 구조에서 바뀌는 것은 없다. 다만 전제 (2)만이 (2a), (2b)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에 반해 톨민의 논증행위 모델은 다음과 같은 일반 형식을 갖고 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논증행위 모델의 형식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논증 형식과도, 논증구조도가 보여주는 형식과도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논리학의 타당한 논증 형식이 준기하학적인 것이고, 논증구조도의 형식이 결론을 지지하는 전제들 간의 독립, 의존 관계를

(Thomas)의 결합(linked) 논증을 추가하고, 대신 발산논증을 뺀 형태이다. Beardsley, M. C.(1950); Thomas, S. N.(1973) 참조.

도식화한 것이라면, 틀민 모델의 형식은 절차적 형식이다.¹⁶⁾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데이터(D)로부터 어떤 주장(C)을 이끌어낸다. 다음으로 데이터로부터 주장이 나오게끔 해주는 보증(W) 장치를 마련한다. 그런데 그 보증에 예외나 반증(R)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그 보증을 뒷받침(B)해 줄 수 있는 것을 찾고, 불가피한 예외의 경우를 고려하여 주장의 확실성에 제한(Q)을 가한다.

이 모델에 따라 피터슨 논증을 분석하면 두 가지 다른 형식을 갖게 된다고 틀민은 말한다. (1)-(2a)-(3)의 경우는 ‘데이터; 보증; 따라서 주장’의 형태인데 반해, (1)-(2b)-(3)의 경우는 ‘데이터; 뒷받침; 따라서 주장’의 형태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논증구조도에 비해 각 전제들의 역할이 더 구체화된 것이다. 틀민에 따르면 이 논증행위 모델은 어떤 분야든 모든 논증이 따라야 할 공통의 형식(field-invariant)이다. 그렇지만 그 형식을 이루는 각 요소를 평가하는 기준은 분야에 따라 달라진다(field-variant).

예컨대 한정사(Q) 중의 하나인 ‘할 수 없다’(can’t)라는 양상어가 포함된 다음 네 문장을 보자.

- (1) 너는 1톤을 들 수 없다.
- (2) 너는 남자 누나를 가질 수 없다.
- (3) 너는 그에게 답을 그렇게 적게 줄 수는 없다.
- (4) 너는 이런 비에 고양이를 바깥에 내쫓을 수는 없다.

이 예들에서 ‘할 수 없다’는 ‘능력이 없다’, ‘불가능하다’, ‘해서는 안 된다’ 등의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그렇지만 공통점도 있다. 즉 그것은 어떤 것을 배제한다. 그러나 배제의 이유는 인간 힘의 한계, 단어의 뜻, 사회적 관습, 도덕 법칙 등 다양하다. ‘할 수 없다’가 어떤

16) Eemeren, F. H. van, Grootendorst, R., & Henkemans, F. S.(1996), 135 쪽 참조.

맥락에서든 배제의 효력(force)은 동일하게 갖지만 그 배제를 정당화하는 근거, 즉 배제의 적절한 기준(criterion)은 문맥에 따라 다르다. 그렇다면 그의 결론은 분명하다. 동일한 한정사(Q)가 주장(C)에 사용되었다고 그것이 포함된 논증의 타당성을 만족시키는 기준은 분야에 따라 다르다.¹⁷⁾

3. 비형식 논리학

비형식 논리학 전통은 이름이 말하듯 형식 논리학에 대한 반발로 1970년대에 북미에서 시작되었다.¹⁸⁾ 논증행위 이론과는 달리 비형식 논리학 전통은 논증행위가 아니라 논증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그 논증은 형식 논리학처럼 탈맥락화되고, 기호화된 명제들의 집합으로서의 논증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신문, 정치적 토론, 잡지 등에서 만나게 되는, 결코 연역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논증들이다. 논증을 분석하되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의 형태로 환원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상적 논증행위의 맥락을 최대한 살리려고 한다는 점에서 비형식 논리학 역시 논증행위에 치중하는 이론과 궤를 같이 한다.

비형식 논리학이 논리학에서 비롯된 만큼 철학자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또 현재 비판적 사고 교재에 가장 많이 도입된 것도 바로 이 분야의 성과들이다. 비형식 논리학의 시작 지점에는 II장을 시작하면서 인용한 하워드 캐헤인이 있다. 1971년에 캐헤인, 1973년에 스티븐 토마스, 1976년에 마이클 스크리븐이 연이어 책을 발간하면서 비형식 논리학 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¹⁹⁾ 스크리븐이 자신의 책에서 제안한 논증 분석의 일곱 단계를 보면 지금도 우리가 그의 길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그 일곱 단계는 ①(논증 및

17) Toulmin, S. E.(1988), 21-30쪽.

18) 비형식 논리학에 관한 국내 논문으로는 박준호(2004) 참조.

19) 세 사람의 책은 다음과 같다. Kahane, H.(1971); Thomas, S. N.(1973); Scriven, M.(1976).

그 구성요소의) 의미 명료화하기, ② 결론 찾기, ③ 구조 그리기, ④ 가정(숨겨진 전제) 표현하기, ⑤ a) 전제와 b) 추론 과정에 대해 비판하기, ⑥ 관련된 다른 논증 도입하기 ⑦ ①에서 ⑥까지의 과정에 비추어서 논증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기이다. 이들 1세대의 업적은 램프 존슨과 앤소니 블레어로, 그리고 그 다음에 고비어로 이어진다.²⁰⁾

1세대에서 비형식 논리학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인 논증 구조 분석의 도구가 거의 완성된다. 앞에서 말한 것에²¹⁾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비어드슬리와 토마스에 이어 스크리븐은 “균형잡힌 고려”를 위해 결론을 반박하는 근거를 다루는 논증을 하나 더 추가하였는데, 이는 반대 입장에 대한 반박이 흔한 일상적 상황을 더 충실히 반영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분석의 도구가 정교해지면서 논란거리도 많아졌다. 특히 전제들이 결론을 독립적으로 지지하는 수렴논증과 전제들이 결합하여 결론을 지지하는 결합논증이 실제 논증에서 구별될 수 있느냐는 우리가 늘 고민하게 되는 문제이며 이론적 논란의 대상이기도 했다.²²⁾

비형식 논리학이 다루는 또 하나의 주된 영역이 오류추리이다. 오류추리 연구의 역사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소피스트적 논박』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비형식 논리학 전통에 합류하게 되는 오류추리의 발원지는 햄블린²³⁾이라 할 수 있다. 오류추리의 문제는 결국 논증 평가의 문제와 직결되는데, 오류추리의 분류, 오류의 기원, 개별 오류추리의 성립 여부 및 성립 조건 등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은 연역적 타당성보다 세밀한 논증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들이라 할 수 있다.²⁴⁾

20) 이 시기의 두 사람의 대표 저서. Johnson, R. H. & Blair, J. A.(1977); Govier, T.(1985).

21) 각주 15 참조.

22) 이와 관련한 논쟁으로는 Yanal, R. J.(1991); Conway, D. A.(1991) 참조.

23) Hambline, Ch. L.(1970).

24) 국내에서도 오류추리 일반 또는 개별 오류추리에 대한 이론적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된 논문으로 최훈(2002/2003/2008/2011); 여영서(2007); 송하석(2010) 등이 있다.

III. 논증행위 평가의 절차와 규범들

논증에 대한 형식적 분석이 지닌 문제점 및 ‘논증에서 논증행위로의 중심 이동’의 동기는 이제 충분히 이해되었다. 그렇지만 논증행위 이론이 대안이 될 수 있으려면 형식적 분석을 대신할 수 있는 평가의 규범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형식 논리학에서 옳은 논증을 판정하는 기준이었던 건전성(=참인 전제 + 타당) 대신, 논증행위 이론과 비형식 논리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 규범을 내놓을 수 있는가? 이 장에서는 대안이 될 만한 규범들을 이들 전통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이 이끌어내 보고, 그것이 어떤 의의와 한계를 갖는지를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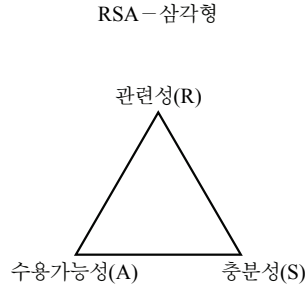
1. 비형식 논리학

비형식 논리학의 관심사는 일상적인 논증행위의 취지를 살리면서 논증을 재구성하고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형식 논리학에서의 논증의 재구성은 그 논증에 맞는 타당한 논증 형식을 찾는 형태가 아니라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논증 구조도로 표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논증 구조도 그리기에서 주목할 부분 중의 하나가 수렴논증과 결합논증의 구분이다. 이 두 논증은 전제들이 결론을 독립적으로 지지하는지 의존적으로 지지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전제들 간의 관계를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즉 수렴이나 결합이냐에 따라 우리는 논증의 평가에서 그 전제들을 둘 다 문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만 문제 삼아도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비형식 논리학에서 마련한 논증 평가의 기본 틀로 대표적인 것은 존슨과 블레어의 RSA-삼각형이다.²⁵⁾ 논증 평가의 3요소라 할 수 있는 이 삼각형의 세 꼭지는 관련성(relevance), 충분성(sufficiency), 수용가능성(acceptability)이다. 이중 관련성과 충분성은 전제와 결론 사

25) Johnson, R. H. & Blair, J. A.(1977), 55쪽.

이의 지지 관계에 관한 것이고, 수용가능성은 전제에 관한 것이다. 관련성을 굳이 충분성에서 떼어 별개의 기준으로 둘 필요가 있는지 또 둘의 구분이 명확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수렴논증과 결합논증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둘을 구분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크다면 구분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방향과 관련하여 점검해야 것은 이 세 기준을 통해 논증을 평가하는 것이 형식 논리학의 건전성(=타당+참) 평가와 어떤 차이를 갖는가이다. 잘 알다시피 관련성과 충분성은 논리적 타당성이 약화되면서 둘로 갈라진 평가 기준들이고, 수용가능성은 전제가 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약화된 평가 기준이다.²⁶⁾ 중요한 것은 타당/부당, 참/거짓의 이분법적 기준을 모두 정도(degree)를 나타낼 수 있는 기준으로 변경시키는 이러한 약화가 갖는 의미이다.

이 약화된 기준들이 실질적인 평가의 규범이 될 수 있으려면 관련성이 있음/없음, 관련성이 큼/작음, 충분함/불충분함, 더 충분함/덜 충분함, 수용가능함/불가능함, 더 수용가능함/덜 수용가능함 등을 판별할 기준을 함께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기준이 일률적으로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설령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동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평가의 기준이 둘에서 셋으로 분화되었다는 점이 한 단계 진전한 것이고, 그 외에는 이 약화된 기준이 규범 제시와 관련해서 기여하는 바는 크게 없는 것 같다. 기

26) 사실 “바람이 분다. 따라서 비가 올 것이다.”처럼 타당하지 않은 논증도 “바람이 불면 비가 온다.”와 같은 숨은 전제를 보충한다면 어떤 논증이라도 타당한 논증으로 만들 수 있다. 대신 받아들이 수 없는 전제가 추가된다. 논리학의 건전성 기준은 이런 추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전성 기준이 약화된다는 말은, 타당성과 전제의 참 양쪽 중 적어도 한쪽에 어느 정도 결함이 있어도 올바르게거나 좋은 논증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것해야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극단적 선택을 배제하고, 정도의 차이를 통한 논증의 상대평가가 의미 있는 작업임을 알려주는 각성 효과를 가질 뿐이다.

2. 페렐만과 올브레히츠-티테카

페렐만과 올브레히츠-티테카의 『새 수사학』은 애초부터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거나 증대시켜주는 논증 기술”²⁷⁾을 기술하는 (describe) 것을 목표로 하며 ‘옳은’ 논증행위가 아니라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논증행위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규범을 끌어 내기는 쉽지가 않고 또 비판적 사고에의 실제 활용도도 미미한 편이다. 다만 그들이 논증행위를 “설득력 있는”(convincing) 것과 “설득 잘하는”(persuasive) 것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올바른 논증의 기준을 엿볼 수 있다. 『새 수사학』에서 논증행위의 건전성은 그 행위가 겨냥하고 있는 청중(audience)에 의해 결정된다. 화자(speaker)는 이 청중 집단의 관심과 성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생각에 지지를 표하게끔 해야 한다. ‘설득력 있는/설득 잘하는’의 구분 역시 이 청중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설득력 있는’ 논증행위란 이성적인 존재라면 누구나 받아들일 것이라고 가정된 논증행위를 말하여, 반면에 ‘설득 잘하는’ 논증행위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승인을 이끌어내는 논증행위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이 둘의 구분에는 보편 청중(universal audience)과 특정 청중(particular audience)의 구분이 깔려있다.

우리가 『새 수사학』에서 뽑아낼 수 있는 옳은 논증 또는 논증행위의 기준은 ‘보편 청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증’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페렐만은 발견적 대화인 논의(discussion)와 대결적 대화인 논쟁(debate)을 구분하고, 논의는 보편 청중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설득하려 하는 것이고, 논쟁은 특정 청중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설득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

27) Perelman, C. & Olbrechts-Tyteca, L.(1969), 4쪽.

다면 보편 청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증이란 어떤 것일까? 단순히 전체가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그 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합리성을 구현하는 한 명의 스승 또는 소수의 지적 집단 등이 보편 청중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청중 일반이 핵심이 아니라 ‘이성적인’ 청중이 핵심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합리성’이라는 어려운 개념과 마주하게 되고, 결국 논증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일보도 전진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된다. 페렐만의 보편청중이라는 개념이 그의 결합이나 분리에 의한 논증 각각의 올바름을 평가하는 어떤 지침과 척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짐작하기 쉽지 않다. 물론 ‘이성적인 청중’ 대신에 ‘청중 일반’을 보편청중으로 삼으면 논증의 올바름을 평가할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척도를 확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다수가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비판적 태도를 갖춘 이가 하는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3. 톨민

톨민에게 올바른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논증의 타당성은 형식 논리학의 타당성과는 다르다. 그는 “타당한” 논증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논증행위가 그가 제시한 논증행위 모델에 맞아 들어가야 하며, 둘째, ‘보증’이 ‘데이터’로부터 ‘주장’으로 나아가는 데 적절하고, 그 ‘보증’이 ‘뒷받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톨민의 이 조건에 따르면, 논증의 올바름은 형식적인 조건과 내용적인 조건이 결합하여 성립한다.

논증행위 모델에 부합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조건은 모든 분야의 논증에 공통되는 조건(field-invariant)이며 따라서 하나의 규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모델 덕분에 이제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논증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올바름을 위해 들여다보아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톨민의 논증행위 모델은 형식 논리의 ‘참인 전제+타당’보다는 훨씬 세분화된 평가의 절차를 마련해준다. 그것

은 전제의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해서 평가해야 하고, 어떤 예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또 그에 맞춰 결론의 지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한정사)까지 마련해 놓았다.

틀민의 논증행위 모델은 각 전제들에 다른 평가의 척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사고 교육에의 활용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이를테면 전제가 ‘데이터’라면 데이터로서, ‘보증’이라면 보증으로서의 적절한 역할과 수용가능성을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데이터’, ‘보증’, ‘뒷받침’ 등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이다. 양은석은 이러한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기존 논증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²⁸⁾고 주장한다.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낫다는 그의 취지는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구분이 주는 이점과 그 구분이 일으키는 혼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분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혼란이 일상적인 논증들에서도 빈번하다면 그의 견해가 힘을 얻겠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도 반증하는 것도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그가 말한 혼란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불필요한 것인지는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설령 틀민식의 구분을 하지 않고 시작하더라도 전제들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게 되면 그 전제의 성격을, 다시 말해 각 전제가 사실적인 주장이나 일반적인 의견이나 등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데이터’, ‘보증’, ‘뒷받침’의 구분에 혼란이 있더라도 그 혼란은 겪을 수밖에 없는 필요한 혼란일 수 있다. 비판적 사고의 과정이 재탄생을 위한 혼란의 과정을 필수로 거친다고 한다면, 혼란을 촉발하는 도구로서 이 구분들은 의미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 틀민의 논증행위 모델이 갖는 또 하나의 미덕은 논증행위 평가 시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틀민은 논증행위 모델에서 올바름을 평가할 때 주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증’의 적절성과 ‘뒷받침’에 의한 ‘보증’의 정당화를

28) 양은석(2010), 93쪽.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미덕은 여기까지만이다. 다음으로 ‘보증’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구체적 기준이나 ‘뒷받침’에 의해 ‘보증’이 정당화되는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툴민은 더 나아가 그 기준은 논의되는 분야 내부의 논리에 의해, 다시 말해 그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논증행위의 건전성은 영역을 가로지르는(interterritorial) 개념이 아니라, 영역 내부의(intraterritorial) 개념이다. 심지어 그는 말하기를, 위대한 과학적 발견은 발견자가 속한 장(field)과 우리 삶의 일반적 상태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논증하는 방식과 좋은 논증이 되기 위한 규범까지도 바꾼다.²⁹⁾

툴민의 이 마지막 언급은 형식 논리학의 건전성 기준이 갖는 특별한 위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필자의 해석으로는 형식 논리학의 건전성 기준은 기껏해야 예컨대 수학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나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의 주장을 따라 가면, 다른 분야의 좋은 논증의 기준은 형식 논리학의 건전성 기준이 단지 약화된 형태가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비판적 사고의 핵심인 논증의 올바른 평가 기준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비판적 사고의 문제는 삶의 문제와 다르지 않은 것이 된다. 이는 비판적 능력을 지식의 단순한 축적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는 우리의 통념과 배치된다.

4. 에머렌과 그루텐도스트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에서 최근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에머렌과 그루텐도스트의 화용-대화론적 접근(pragma-dialectical approach)을 추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들의 이론이 지금까지의 논증행위 이론을 집대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자세하고 포괄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논증행위의 규범들을

29) Eemeren, F. H. van, Grootendorst, R., & Henkemans, F. S.(1996), 134 쪽 참조.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규범들의 비판적 사고에의 활용가능성을 점검한다면 그것은 곧 논증행위 이론의 비판적 사고에의 활용 가능성의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점검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름이 보여주듯 화용-대화론적 접근은 그 전까지 있어왔던 논증행위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과 대화론(변증론)적 접근의 성과를 대중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³⁰⁾ 그들은 논증적 담화의 기술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의 종합을 시도하고 있는데, 언어행위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 성과로부터 경험적, 기술적 차원의 도움을, 논증행위에 대한 대화론적, 변증론적 연구로부터 논리적, 규범적 차원의 도움을 받아 이를 종합하고 있다. 문제는 종합의 방법인데, 그들은 합리적 전통과 경험적 전통을 종합하는 칸트의 선험적(transcendental) 종합의 방법을 따른다. 다시 말해 논리적인든 경험적인든 논증행위 바깥에 설정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논증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것을 배제하고, 논증 절차 그 자체가 가진 본래의 기능에 근거해, 즉 논증행위의 가능근거를 토대로 논증행위의 합리성을 평가한다. 즉 논증 절차가 목표하는 바를 잘 이루도록 그 논증행위가 기능한다면 그 논증행위는 합리적이다.³¹⁾

그렇다면 논증 절차를 가능케 하는 그것의 원래 목적은 무엇인가? 이들에 따르면 논증행위란 “의견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언어의 사용을 특징으로 갖는 담화의 특정한 양식”³²⁾이다. 논증행위의 목적은 의견의 차이 해소인 것이다. 물론 의견 차이 해소는 제3자의 일방적, 강제적 조정이 아니라 대화 당사자 간의 의견 일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논증행위의 올바름을 판정하는 규범은 대화를 통한 의견 차이 해소를 촉진시키는 지침의 형태를 띠 수밖에 없다.

30) 이들에 이론에 접근하는 길잡이가 되는 세 권의 책은 Eemeren, F. H. van, & Grootendorst, R.(1984); (1992); Eemeren, F. H., Grootendorst, R., Jackson, S. & Jacobs, S.(1993).

31) 간단한 요약은 Eemeren, F. H. van, Grootendorst, R., & Henkemans, F. S.(1996), 23쪽, 자세한 설명이 나온 최근의 책으로는 Eemeren, F. H. van, & Grootendorst, R.(2004), 13-18쪽 참조.

32) Eemeren, F. H. van, Grootendorst, R., & Henkemans, F. S.(1996), 275쪽.

이들은 의견의 차이를 해소하는 과정을 네 단계, 즉 의견 상충이 확인되는 맞대면(confrontation) 단계, 양쪽의 입장 차와 토론의 공통 지반을 확인하는 개시(opening) 단계, 한쪽이 논증을 제시하고 다른 쪽이 그에 반응하는 논증행위(argumentation) 단계, 마지막으로 찬성자의 의견 유지나 철회가 결정되는 결론(concluding)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규범들을 찾아 이를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강령들 중 기본적인 10개, 즉 금지의 형태로 표현된 합리적 논증행위의 “10계명”³³⁾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규칙 1. 양쪽은 각각의 견해 표명이나 의문 표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규칙 2. 견해를 표명한 쪽은 자기 견해를 옹호하라는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 규칙 3. 견해에 대한 공격은 다른 쪽이 제시하지 않은 견해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 규칙 4. 견해는 비논증행위나 그 견해와 관련 없는 논증행위에 의해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
- 규칙 5. 자신의 암묵적 전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쪽이 가정하지 않은 것을 가정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 규칙 6. 받아들여진 전제가 아닌 것을 받아들여진 출발점으로 삼거나, 출발점으로 받아들인 전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 규칙 7. 논증행위에서 형식적으로 결정적인 것으로 제시된 추론은 논리적인 의미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
- 규칙 8. 형식적으로 결정적인 추론에 토대하지 않은 논증행위에 의해 옹호된 견해는 그 옹호가 적절한 논증 도식에 의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결정적으로 옹호되었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 규칙 9. 어떤 견해의 옹호 실패가 그 견해의 유지로 끝나거나, 어떤 견해의 결정적 옹호가 그 견해의 의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 규칙 10. 충분히 분명치 않거나 애매해서 혼동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쪽은 다른 쪽의 표현을 의도적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

33) Eemeren, F. H. van, & Grootendorst, R.(2004), 187-196쪽. 이전 형태는 (1992), 208-209쪽.

비판적 사고의 함양과 관련하여 이 규칙들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갖는 것일까? 우선 이 10개의 규칙은 오류추리 분류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오류추리들이란 다름 아니라 10개의 규칙 중 하나나 그 이상을 어긴 것이다. 에머렌과 그루텐도스트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기존의 오류들을 십계명의 각 규칙 아래로 분류한다. 예컨대, 힘에 호소하는 오류는 규칙 1을,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는 규칙 3을, 순환논증의 오류는 규칙 5를 어긴 것이 된다. 이 분류를 통해 새롭게 조명 받는 것도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로 함께 취급했으나 이제는 그 중 군중 심리에 호소하는 오류는 규칙 4를, 대다수가 옳다는 이유로 옳다고 여기는 형태의 오류는 규칙 7을 어긴 것으로 달리 분류된다.³⁴⁾

다음으로 이 규칙들은 논증적 담화의 재구성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다. 특히 일상적인 논증행위를 올바른 분석과 평가의 대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들 가운데서 빼기, 더하기, 자리 바꾸기, 바뀌치기의 네 가지 변형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규칙들은 이를 위한 지침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칙들이 이 재구성을 위한 변형 작업에 얼마만큼 적극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까? 이 규칙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상위 원칙인 자비의 원칙의 하위 원칙들로 포섭될 수 있는, 논증행위의 가장 기초적인 규칙들이어서 심지어는 연역지상주의자조차도 이견이 없을 것들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업적이라면 이 규칙들을 일정한 원칙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도출했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다만 두 개의 규칙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추론이 결정적으로 옹호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한 규칙 7과 8이다. 규칙 7과 8은 논증행위에서 일어나는 추리를 간단히 말해 형식적인 추리와 비형식적인 추리로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에 의거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추리의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논증

34) 자세한 내용은 Eemeren, F. H. van, & Grootendorst, R.(1992), 93-117쪽 참조.

형식에, 비형식적인 추리의 경우에는 적절한 논증 도식에 따를 때에만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다른 평가 규범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규칙 8을 제외하고 규칙 7과 나머지 규칙들만 남겨놓는다면 연역지상주의자의 9계명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차이점을 찾고자 하면 더더욱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규칙 8,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규칙에서 따르라고 말하는 ‘적절한 논증 도식’이다. 이 논증 도식은 그들 말대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지 않은 논증에 의해서도 견해들이 결정적으로 옹호될 수 있음”³⁵⁾을 보증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논증 도식을 논증행위 바깥에서 찾지 않는다. 그들에게 논증 도식이란 논증의 올바름을 테스트하기 위해 찬성쪽과 반대쪽이 채택하기로 합의한 방법에 다름 아니다. 그들이 설정한 공통의 지반 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도식일 때 그 논증 도식은 적절하고도 올바르다. 사실 규칙 7에서 말한 논리적인 의미에서 타당하다는 것도 그들은 형식 논리적 타당성보다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형식 논리학이 논리학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논리적 타당성조차도 채택하는 논리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 결국 어떤 종류의 논증이든 논증행위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올바름의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 기대했던 규칙 7과 8이 우리에게 추가로 제공해주는 실질적인 규범은 결국 아무 것도 없다.

IV. 논증행위 규범의 종합적 모델과 비판적 사고의 과정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네 종류의 행위이론적 전통을 종합하여 형식 논리적인 비판적 사고의 규범을 대신할 행위이론적 비판적 사고의 규범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다행히 우리는 비형식논리학, 페렐만과 올브레히츠-티테카, 툴민, 에머렌과 그루텐도스트의 성과를 종합할 수

35) Eemeren, F. H. van, & Grootendorst, R.(2004), 194쪽.

있는 단서를 마지막 두 사람의 10계명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10계명 중에서 규칙 7과 8은 논증행위에서 이루어지는 추론에 대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다른 여덟 개의 규칙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종합을 위한 첫 단계는 규범을 논증행위에 대한 규범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론, 즉 논증에 대한 규범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고 보면 논증행위에 대한 규범은 에머렌과 그루텐도스트의 규칙 7, 8을 제외한 나머지 규범들로부터 충분히 구성될 수 있다. 물론 필요하다면 페렐만과 올브레히츠-티테카의 논증행위 이론과 보편칭중 개념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논증행위에 대한 규범에는 논증행위의 시작과 진행, 마무리뿐만 아니라, 논증을 재구성하기 위한 더하기, 빼기, 자리 바꾸기, 바꿔치기 작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 남은 규칙 7과 8은 그렇게 해서 재구성된 논증의 평가를 위한 규범의 역할을 하는데,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형식 논리학의 논증 구조도와 RSA-삼각형, 툴민의 논증행위 모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에머렌과 그루텐도스트의 견해와 무관하게 또는 상반되게 필자가 이런 종합을 시도하는 이유는 비형식 논리학과 툴민의 모델이 논증의 평가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적인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는 비형식 논리학의 논증 구조도의 도움을 받아서 전제들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더 진행할 수 있고, 툴민의 모델의 도움을 받아서 각 전제들이 결론 도출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좀 더 자세히 규정할 수 있으며, 또 그에 맞추어 각 전제에 대한 평가의 지침도 세밀하게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종합이 일관된 이론적 토대를 가질 수 있는가, 논증행위와 논증 간의 분명한 구분이 가능한가, 등의 의문이 당장 제기될 것이다. 하지만 논증행위의 평가의 주요 과정 중의 하나가 논증행위로부터 논증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쨌든 논증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유의미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본다. 논증행위로부터 논증을 분리, 재구성하는 작업은 추상화의 작업인데, 추상화의 정도와 그 종착점은 다를지라도 추상화 자체의 유의미성과 불가피성은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의 변명으로 만족하고 체계의 일관성과 구분의 엄밀성 등에 대한 이론적 의문을 감내하는 것은, 본 논문의 목적이 논증행위 이론에서 도출되는 규범과 절차가 비판적 사고 교육에 활용될 최선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론적 결함을 무시하고 짜깁기된 이 논증행위 규범의 종합적 모델의 역할을 비판적 사고 향상의 관점에서 검토해보자. 비판적 사고에 대한 잘 알려진 정의는, 비판적 사고란 “무엇을 믿거나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합리적 반성적 사고”³⁶⁾ 또는 “믿음과 행위의 안내가 되는 것으로서, 관찰, 경험, 반성, 추리, 의사소통 등을 통해 수집되거나 생산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능숙하게 개념화, 적용, 분석, 종합, 평가하는 지적으로 숙달된 과정”³⁷⁾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결과적으로 도달한 최종 상태에 대한 정의이므로 비판적 사고 향상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에는 오히려 과정을 기술한 다음 정의가 더 도움이 될 듯하다. 비판적 사고란 “문제나 의문이나 상황을 탐색하고, 그것에 관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해결책이나 가설에 도달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능력”³⁸⁾이다.

비판적 사고 교육은 한마디로 비판의 과정을 훈련하는 것이다. 비판의 과정, 특히 논증행위 상황에서 비판의 과정이란 주어진 견해와 근거를 분명한 형태로 재구성하고, 근거의 확실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이 되는 견해를 제시하여, 더 나은 견해를 도출하고 입증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논증에 대한 형식 논리학적 모델과 우리의 논증행위론적 종합 모델이 만들어내는 교육적 차이는 바로 이 과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36) Ennis(1989), 1쪽.

37) Scriven, M., and Paul, R.W.(1987).

38) Warnick, B., and Inch, E.(1994), 11쪽.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형식 논리학적 모델:

(1) 자비의 원칙에 따라 주어진 견해와 근거를 최대한 상황과 의도에 맞게 논증의 형태로 재구성한다. (2) 논증의 재구성을 위한 추상화 작업은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의 제반 형식들 중의 하나와 일치될 때까지 계속한다. 필요하다면 타당한 형식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숨은 전제를 보충한다. (3)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 형식들에 맞게 재구성되었다면 그 논증의 전제들의 참에 대한 평가 작업에 착수한다. (4) 만약 전제가 참이 아닐 논리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가능성을 제기하고 대안이 되는 논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스스로 제시한다. (5) 그리하여 연역적으로 타당하면서도 전제의 참이 의심받지 않는 논증이 완성될 때 비판의 작업은 성공적으로 끝이 난다.

논증행위론적 종합 모델:

(1) 자비의 원칙에 따라 주어진 견해와 근거를 최대한 상황과 의도에 맞게 논증의 형태로 재구성한다. (2) 논증의 재구성을 위한 추상화 작업은 우선 1단계에서는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논증 구조도로 나타내고, 다음 단계로 각 전제가 갖는 역할을 명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논증 구조도로 나타내는 1단계에서는 전제들 간의 관계가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그리고 수평적이라면 서로 독립적이냐 의존적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적인 작업이 되고, 전제들의 역할을 명시하는 2단계에서는 톨민의 논증행위 모델의 도움을 받아 각 전제가 사실에 대한 데이터인지, 데이터와 결론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일반 명제인지, 아니면 그 일반명제를 다시 뒷받침해주는 사실적 주장인지 등을 구분하는 작업이 핵심적인 작업이 된다. (3) 논증구조도와 톨민의 논증행위 모델에 맞게 논증이 재구성되었다면 그 논증의 전제들의 수용가능성 및 그 모델의 일원으로서 각 전제들의 역할 수행 정도에 대한 평가 작업에 착수한다. (4) 전제의 수용가능성과 각 전제의 역할 수행 정도에서 그 논증행위가 이루어지는 분야의 공인된 인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만족시키는 대안이 되는 논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스스로 제시한다. (5) 그리하여 해당분야의 공인된 인정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논증이 완성될 때 비판의 작업은 성공적으로 끝이 난다.

두 모델의 다섯 단계는 각각 비판을 위한 (1) 논증 분석 시작, (2) 논증 분석 마무리, (3) 논증 평가 시작, (4) 논증 평가 마무리, (5) 비

판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1) 논증 분석 시작의 단계에서는 두 모델에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에머렌과 그루텐도스트의 10계명 중에서 규칙 7과 8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범들은 이 (1) 단계를 위한 규범들이다. 그들이 상세하게 밝혀놓은 규칙들에서 우리가 특별한 감흥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은 어느 모델이든 이미 충분히 따르고 있는 규범을 좀 더 체계적으로 친절하게 밝혀놓은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차이는 (2) 단계부터 시작되는데, 각 단계별로 눈에 띄는 점을 지적하면, (2) 논증 분석 마무리 단계에서는 첫 번째 모델은 형식적으로 타당한 논증이 종착지인데 반해, 두 번째 모델은 ‘논증 구조도+틀민의 논증행위 모델’이 종착지라는 점, (3) 평가 시작 단계에서는 첫 번째 모델은 결국 전제들의 참 여부 하나에 평가가 집중하게 되는 데 반해, 두 번째 모델은 전제의 수용가능성과 전제들의 역할 수행 정도 두 측면에서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 (4) 평가 마무리 단계에서는 대안이 요구되는 때가 첫 번째 모델에서는 전제가 참이 아닐 논리적 가능성이 있을 때인데 반해, 두 번째 모델에서는 논의 분야의 공인된 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때라는 점, (5) 비판 마무리 단계에서는 비판의 궁극적 목적이 첫 번째 모델에서는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의 완성인데 반해, 두 번째 모델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논증의 완성이라는 점 등이다.

이 둘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비교해 놓고 볼 때, 그렇다면 비판적 사고 교육을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합당한가? 가장 쉬운 대답은 논증행위가 이루어지는 분야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일 것이다. 학문 분야별로 요구되는 엄격성의 정도가 다른 만큼 예컨대 수학은 첫 번째 모델을, 여타의 학문은 두 번째 모델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답이다. 이 대답은 사실상 두 번째 모델에 더 손을 들어주는 것 같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모델은 두 번째 모델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상황의 특수한 한 케이스로 포섭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지당한 대답이기

는 하지만 이 대답은 질문의 본래 취지를 살려주는 답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실제 이루어지는 비판적 사고 교육이 분야별로 특화되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질문은 이렇게 고칠 필요가 있다. “교양기초 교육으로서 비판적 사고 교육은 어느 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둘 중의 어느 한쪽을 우선시해야 한다면 필자는 첫 번째 모델을 근간으로 삼겠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교육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두 번째 모델은 비판적 사고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갖춰야 할 비판적 사고 교육의 목표에 가까운 것이므로 이에 바로 도달하려고 하기 보다는 기초적인 훈련을 위해 단순하면서도 원리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첫 번째 단계가 교육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둘째, 첫 번째 모델은 기초적인 모델이면서 또한 최종적인 모델이기 때문이다. 연역적으로 타당한 이론의 체계는 분야를 막론하고 학적인 모든 활동의 궁극적 목표점이자 이상이다. 모든 학문이 좌표의 영점 주위에 멀게 또는 가깝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자. 첫 번째 모델이 이상으로 삼는 연역적 체계는 모든 학문이 여기로 수렴하고자 하는 영점과도 같은 것이다. 각각의 전공에 진입함에 따라 점점 이 영점에서 멀어지겠지만 그 전에 적어도 영점의 이상적인 모델을 조금이나마 맞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판적 사고 교육이 해주어야 할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셋째, 둘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연역적 체계의 요구는 데카르트가 한 것과 같은 방법적 회의를 가능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논리적 타당성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나 법칙적으로 대단히 높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논리적 가능성이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논증은 연역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비판을 통한 사고의 확장 역시 비판적 사고 교육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첫 번째 모델의 활용을, 단지 인기가 없

다고 해서, 회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앞에서 캐헤인이 한 학생으로부터 받았던 불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두 번째 모델을 우선시 하는 것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놓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학생들의 불만에 대한 해결책은 따라서 두 모델 중 어느 하나를 택하는 방법으로는 찾기 어렵다. 그렇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두 모델을 단계적으로 진행 하는 방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1단계 과정에서는 첫 번째 모델을,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두 번째 모델을 위주로 비판적 사고 교육을 진행시키는 것이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두 마리의 토끼를 그나마 온전하게 잡는 길이라 생각된다.³⁹⁾

본 논문이 상식적인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을 재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크게 새로울 것은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논증 행위 이론의 지금까지의 성과들이 비판적 사고의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적용되었을 때 형식 논리적 접근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는 점, 그리고 그를 통해 단계적 적용의 가능성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게 알려주는 바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투 고 일: 2011. 7. 19.
 심사완료일: 2011. 8. 17.
 게재확정일: 2011. 8. 20.

배식한
 성신여자대학교

39) 양은석(2010)은 논증유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비판적 사고 학습의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논증행위 모델인 톨민의 모델 같은 경우는 적용하기 불분명하다는 것을 비판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적용의 분명/불분명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방식이 비판적 사고의 향상에 더 효과적이냐 이다. 설령 좀 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비판적 사고의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일정 부분 감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단계적 수용안은 그의 견해보다는 톨민 모델에 우호적이다.

참고문헌

- 김광수, 『논리와 비판적 사고』, 철학과현실사, 1990.
- 박준호, 「비형식 논리학의 논증 평가 개념」, 『범한철학』 제34집, 2004년 가을(151-175), 2004.
- _____, 「논증의 종류와 평가의 기준」, 『범한철학』 제42집, 2006년 가을(273-296), 2006.
- 송하석, 「무지로부터의 논증, 모두 오류인가?」, 『논리연구』 13집 2호 (61-82), 2010.
- 양은석, 「공학도를 위한 논리: ‘발표와 토론’을 위한 논리 교수·학습 모형」, 『논리연구』 13집 2호(83-116), 2010.
- 여영서, 「오류의 정의」, 『범한철학』, 45집 2007년 여름(187-205), 2007.
- 최훈, 「무지에의 호소는 오류인가?」, 『논리연구』 5집 2호(133-151), 2002.
- _____, 「사람에의 호소는 오류인가?」, 『논리연구』 6집 1호(51-68), 2003.
- _____, 「오류의 새로운 정의」, 『범한철학』 51집(359-378), 2008.
- _____, 「무지에의 호소 다시 보기」, 『논리연구』 14집 2호(77-103), 2011.
- 코피, 어빙, 민찬홍 역, 『논리학 입문』, 이론과실천사, 1990.
- Beardsley, M. C., *Practical Logic*,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50.
- Berger, F. R., *Studying Deductive Logic*, London: Prentice-Hall, 1977.
- Coffa, A. J., “Hempel’s Ambiguity”, *Synthese* 28, 1974(141-163), 1974.
- Conway, D. A., “On the Distinction between convergent and linked Arguments”, *Informal Logic*, 13(145-158), 1991.

- Eemeren, F. H. van, & Grootendorst, R., *Speech Acts in argumentative Discussions: A theoretical Model for the Analysis of Discussions directed towards solving Conflicts of Opinion*, Dordrecht/Cinnaminson: Foris Publications, PDA1, 1984.
-
- _____, *Argumentation, Communication, and Fallacies: A pragma-dialectical Perspectiv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2.
-
- _____, *A systematic Theory of Argumentation: The pragma-dialectical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4.
- Eemeren, F. H. van, Grootendorst, R., & Henkemans, F. S., *Fundamentals of Argumentation Theory: A Handbook of Historical Background and Contemporary Developments*, New York/London: Routledge, 1996.
- Eemeren, F. H., Grootendorst, R., Jackson, S. & Jacobs, S., *Reconstructing argumentative Discourse*, Tuscaloosa/London: The Univ. of Alabama Press, 1993.
- Ennis, R. H., “Critical Thinking and Subject Specificity”, *Educational Researcher*, 18(4-10), 1989.
- Govier, T., *A Practical Study of Argument*. Belmont, CA: Wadsworth, 1985.
- Hamblin, Ch. L., *Fallacies*, London: Methuen, 1970.
- Johnson, R. H. & Blair, J. A., *Logical Self-defense: The Craft of evaluating Persuasion in everyday Life*, Toronto: McGraw-Hill, 1977.
- Kahane, H., *Logic and Contemporary Rhetoric: The Use of Reason in everyday Life*, Belmont, CA: Wadsworth, 1971.
- Perelman, C. & Olbrechts-Tyteca, L., *The New Rhetoric: A Treatise on Argumentation*, (trans.) Wilkinson, J and Weaver, P., Notre

- Dame: Univ. of Notre Dame Press. (원문은, *La nouvelle rhétorique: Traité de l'argumentation*,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8), 1969.
- Scriven, M., *Reasoning*, New York: McGraw-Hill, 1976.
- Scriven, M., and Paul, R. W., *Critical Thinking as Defined by the National Council for Excellence in Critical Thinking*, 1987.
- Thomas, S. N., *Practical Reasoning in Natural Languag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 _____, *Practical Reasoning in natural Languag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 Toulmin S. E., *Knowing and Action: An Invitation to Philosophy*, New York: Macmillan, 1976.
- _____, *The Uses of Argument*,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 Press, 1958.
- _____, *The Uses of Argument*(9th ed.),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 Press, 1988.
- Warnick, B., and Inch, E., *Critical Thinking and Communication*, 2nd ed. New York: Macmillan, 1994.
- Wenzel, J. W., "Perspectives on Argument", in Rhodes, J. & Newell, S. E.(1980) (eds.), *Dimensions of Argument: Proceedings of the Summer Conference on Argumentation* (112-133), Annandale, VA: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1980.
- Yanal, R. J., "Dependent and independent Reasons", *Informal Logic*, 13(137-144), 1991.

ABSTRACT

Argument and Argumentation: in the light of critical thinking education

Bae, Sik-Han

The methods of critical thinking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have made a considerable change from concentrating on formal, logical analyses of arguments to focusing on informal, dialectical interpretations of argumentation over the last 20 years. I attempt to examine and evaluate the effects and limits of this ‘shift from argument to argumentation’. My strategy is to extract the norms for evaluating arguments or argumentations from theories of argumentation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at first and then to apply those norms to educational processes for critical thinking. Finally I show the concrete roles they play as regards improvements in critical thinking ability. This paper begins with a survey of the early stages of the change by concentrating on three main streams: the work of C. Perelman and L. Olbrechts-Tyteca, the work of S. E. Toulmin, and the informal logic movement (II). This paper then scrutinizes how many norms which can be substituted for formal logical validity we can extract from these streams (III). The paper ends by formulating a synthetic model which integrates the extracted norms, applying the model to the critical thinking process, and illustrating the concrete roles it plays in creating improvements in critical thinking (IV).

Keywords: Critical Thinking, Argument, Argumentation, Informal Logic, Logical Validity, Norm Logical Validity, Norm

